

국내 모든 연구기관 분업체제 이룩되어야...

- KIDS 개최, 과학기술토론회에서 -



최근 민간연구소의 활성화와 함께 대학의 연구개발능력이 확충되면서 정부출연 연구소의 역할과 위상이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난 25년동안 우리나라의 중추적인 과학기술 연구기관으로 성장해 온 KIST가 향후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인가를 모색해보기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었다 (본문 계속)

한국 과학기술연구원(KIST)이 5월 10일 KIST 존슨강당에서 개최한 이번 토론회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비롯한 국내 연구계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으며, 3편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회로 진행되었다.

*** 韓 榮 成** 과거처차관

정부는 출연연구소의 운영 효율화를 위해 현재의 이종구조적 출연방법을 일원화해 연구사업중심의 출연방식으로 전환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이사회가 연구소 중요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자율화를 추진하며, 單年度 예산주의에 따른 연구의 불안요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수한 연구소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과 기업의 연구인력을 포용하고 활용하는 개방체제를 갖추어야 합니다.

(참조: 이번호 p.p 66~69)

*** 姜 麟 求** 금성사 副社長

기업의 신규사업 진출에 따르는 위험성을 경감시킬수 있는 선도적 연구를 수행하는 최소한의 연구조직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KIST는 미래산업사회 예측을 통한 미래수요연구를 담당해야 된다고 보며, 선진과학기술 외교의 창구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조: 이번호 p.p 70~73)

*** 金 殷 泳** KIST 원장

앞으로 KIST는 적어도 10년앞을 내다보는 미래지향적 연구와 독창성이 높은 원천기술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KIST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등이 뒤따라야 합니다.

또한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연구성과를 촉진하는 정부 및 언론의 시각이 장기적인 관점의 평가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조: 이번호 p.p 74~77)

*** 이 한 주** 연세대 교수

앞으로 10년후면 우리나라의 모든 연구개발기관들이 분업시대에 들어갈 것이며, 벌써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산업계, 학계,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기능이 협동이 되어 분업체제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KIST가 종합연구기관이 되려면 경제학자, 정치학자, 사회학자 등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